



# 40여년 역사 바탕으로 신뢰·품질 갖춘 경영실천

## ISO9002인증 획득·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발전하는 기업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때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적잖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변화의 노력이 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들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소기업에게는 꿈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 위치에 안주해 버리고 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 얼마 전부터 기업들 사이에서 각종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마치 붐처럼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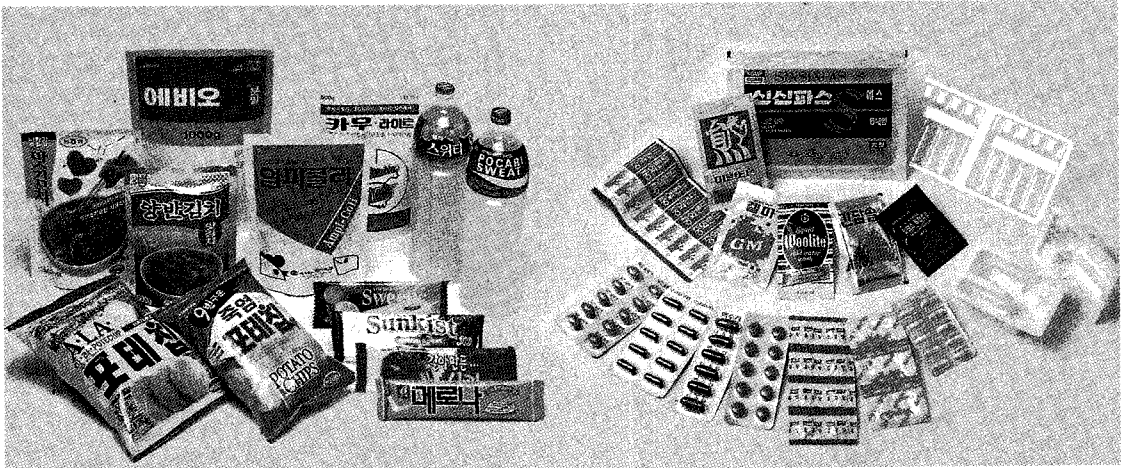
외국의 바이어들의 요청에 의한 필연적인 목적이 대부분으로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품질에서의 평가는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 보다는 자체내에서의 만족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만드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공



▶ 우진특수인쇄공사 군지암공장 전경



◀ 우진특수공사의 식품포장재 및 의약품 포장재

급하기 위해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라비아 인쇄 및 특수포장재 전문제조업체인 우진특수인쇄공사(사장 김수돈)는 35년이라는 설립역사가 품질의 우수성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품질기준을 재정립하고 보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개월동안의 준비 끝에 최근 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9002인증을 획득했다.

우진은 그간의 오랜 역사와는 상반되게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부로 알려지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하자는 경영자의 방침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품 포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진은 설립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온 제약회사들과 남다른 신뢰를 쌓고 있다.

창립자인 김수돈 사장은 지난 1960년 마포에 우진특수인쇄공사를 설립하고 40여년이 지난 지

금까지 포장인쇄업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무리 없는 경영을 펼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를 남달리 중요시하는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보람도 컸지만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진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힘을 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에 급급한 연포장업계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앞으로는 공동으로 살아가야 할 방안이 모색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그라비아 인쇄제품의 수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수한 경지에 오른 반면 원단의 품질이 떨어져 수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필름업체들의 분발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진은 4~5년전부터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 97년 대부분의 설비를 최첨단으로 교체하고 21



세기를 대비한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T-DIE Hopper 까지 설치된 파이프를 따라 폴리에틸렌이 자동 공급되는 장치인 Polyethylene Stock Tank와 하절기에 모기, 파리 등 벌레의 침입을 막아주는 전자동 시스템인 에어 커텐시스템은 우진의 자부심이다.

또한 위험물 (EA, Toluene, I.P.A., Acetone 등)이 설치된 파이프라인을 따라 자동으로 인쇄 실로 공급되는 위험물 저장 탱크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은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설치하기 어려운 최첨단 설비이다.

이러한 우진의 설비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최고의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김 사장의 경영마인드에서 비롯되었는데



▲ 우진특수인쇄공사의 8도 그라비아 인쇄기

“최신 설비확보와 품질을 위한 노력들은 지난 35년간 신뢰를 가져준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자는 데 첫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21세기를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설비외에도 자동 색도 조절장치와 자동 장력 조절장치 부착으로 미숙련공도 고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성도 증진시켰다.

그리고 최상의 인쇄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8도인쇄기 1000m/m이상의 장폭 인쇄물 합지가 가능하며 견고하게 설계된 프레임 및 기타 구조물은 기계의 진동 및 소음등을 극소화하여 오랜기간 운전해도 변형이 없도록 특수 설계된 최신형 T-DIE가 우진의 우수한 제품생산의 비결이다.

또한 김 실장은 우진의 블리스터용 경질 인쇄 Foil은 잉크와 은박의 접착을 강하게 하기위해 인쇄하기 전에 수지처리를 하고 인쇄후 접착제를 한번 더 처리함은 물론 OVER COATING을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접착제로 인쇄물과 은박의 접착, 또는 은박과 PE와의 접착력이 강한 것이 장점이라고 밝히고 최고 130℃의 고열에서도 견디는 접착력을 가진 파우치와 외관이 미려하고 흠집이 없는 블리스터 포장은 우진의 역사와 함께 발전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상우 실장은 우진의 이번 ISO인증 획득의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실력자로 현재는 우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 우진특수인쇄공사는 최근 ISO 9002인증을 획득했다(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상우 실장).

핵심으로 ISO인증 획득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21세기 기업 필요로 하는 준비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이다.

김 실장은 “40여년간 사장님께서 이뤄 놓은 것을 바탕으로 인쇄업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ISO 인증 획득이 이러한 노력 중 하나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ISO인증 획득과 함께 국제인증협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IQ NET를 동시에 승인받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도 도전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최신 첨단시스템에 의한 첨단제품을 적기적량 공급함으로써 품질은 물론 서비스

면에서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재삼 강조했다.

매출의 70%이상이 동아제약, 한독약품 등 제약회사 제약품 포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우진특수인쇄인쇄공사는 IMF로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최근 몇년에 비해 오히려 매출이 30% 신장했으며 지난 해에는 65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곤지암의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 도착한 우진특수인쇄공사의 모습은 공장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허물게 했다.

잘 가꾸어진 공장 안팎을 보며 세심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는 우진 가족들의 노력을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제품의 품질과 연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

이선하 기자